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HI homes in on \$1.4bn orders for up to 16 VLCC newbuilds

현대중공업이 VLCC 16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Everest Korea Finance Advisory와 VLCC 10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척 당 선가는 약 8,500만달러라고 보도됨. 이번에 체결한 LOI는 Everest Korea가 용선주를 구할 경우에만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은 최근 몇 주간 VLCC만 6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South Korean yards breathe easier as newbuilding enquiries rise

국내 빅3들에게 최근 VLCC, 대형컨테이너선, LNG선에 대한 문의(enquiry)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은 Adnoc Logistics & Services로부터 VLCC를, Hapag-Lloyd가 발주하는 울트라라지컨테이너선(이중연료추진 가능성 있음)에 대한 수주 이슈가 있으며, 삼성중공업에게는 Suezmax탱커에 대한 추가 건조 문의가 있다고 보도됨. 한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Total사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LNG프로젝트용 LNG선 17척의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AW Shipping adds two more LPG-fuelled VLGCs at Jiangnan Shipyard

AW Shipping이 Jiangnan Shipyard에게 2척의 LPG추진 VLGC를 추가로 발주했다고 보도됨. 지난 7월 체결한 3척의 VLGC 건조계약의 옵션분 2척이 확정발주되며 총 5척이 건조계약 체결됐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7,300만달러 수준이며 인도기한은 2022~2023년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프랑스, 미국산 LNG 수입 제동

미국 NextDecade가 프랑스 전력업체 Engie SA와 체결하려던 70억달러 규모의 LNG판매 계약이 무산됐다고 보도됨.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국영발전소의 LNG 수입 계약 체결을 막았으며, 이유는 미국 셰일가스에 대한 환경 측면의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됨. 프랑스 정부는 구매 계약을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현대로템, 철도연과 손잡고 수소전기열차 조기 상용화 추진

현대로템은 4일 경기도 의왕 본사에서 철도연과 '수소에너지 기반 철도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5일 밝힘. 이번 MOU에 따라 현대로템과 철도연은 트램, 전동차, 기관차 등 수소전기열차 개발을 위해 기술을 교류하고, 수소전기열차의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LIG넥스원 "이노와이어리스 주식 331억원에 추가취득"

IG넥스원은 통신용 시험/계측기 및 Small Cell 사업 업체 이노와이어리스의 주식 111만5천327주를 약 331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5일 공시함. 주식 취득 예정일은 9일이며 주식 취득 뒤 LIG넥스원의 이노와이어리스 지분율은 21%가 된다고 보도됨. LIG넥스원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이노와이어리스 주식 추가 취득 및 민수사업 확장"이라고 밝힘. (연합뉴스)